

## &lt;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현대미술 강좌』 &gt;

## 1. 파리에서 뉴욕으로: 추상표현주의의 태동과 뉴욕아트마켓의 부상

**1. 뉴욕아트마켓의 생성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없이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경제, 정치를 상상할 수 없듯이 문화예술도 마찬가지. 이 전쟁으로 미국은 군사 장비와 기타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정치군사 리더로도 부상.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할 것 없는 미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인 소련의 정치 위협과 대결구도 형성.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공산주의 열기도 무시할 수 없는 불안 요소로 작용. 이때 미국은 문화예술이라는 카드 사용.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의 상징으로서 자국의 전위 미술(추상표현주의)을 적극 지지하고 홍보한다는 전략 수립.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미술계의 열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쌓아감으로써 미국은 세계 미술의 메카로 입지 구축.

**2. 아트딜러들의 활약**

1940년대에 이르러 몇몇 갤러리가 문을 열기 시작. 추상표현주의가 꽃을 피운 50년대에 뉴욕에 있는 갤러리 수는 30여 개.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맨해튼 시내에만 500여 개의 갤러리.

베티 파슨스 Betty Parsons, 샘 쿠티 Sam Kootz, 찰스 이건 Charles Egan 같은 진정한 의미의 선구자적인 아트딜러들 등장. 이외에도 50년대 미술시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시드니 재니스 Sidney Janis, 티보 드 나기 Tibor de Nagy, 안드레 에머리치 Andre Emmerich, 알렉산더 이올라 Alexandre Iolas, 마사 잭슨 Martha Jackson과 엘리너 워드 Eleanor Ward, 레오 카스텔리 Leo Castelli 등. 특히 카스텔리는 네오 다다와 60년대 팝아트를 섭렵하면서 시장의 '파워 딜러'로 떠오르기 시작.

**3. 추상표현주의의 등장**

추상표현주의라는 단어는 일군의 젊은 미국 작가들의 작업을 지칭하기 위해 『뉴욕커』의 비평가 로버트 코테스 Robert Coates에 의해 1946년 처음 명명. 이들은 자신만의 화법을 창조하기 위해 고립된 작업환경을 선택하였지만, 유럽의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술을 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공유, 화면을 대폭 확대하는 공통점. 캔버스가 거대해진다는 이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결국 미국 회화를 유럽 회화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 초래.

**4. 추상표현주의의 4인방**

잭슨 폴록 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클리포트 스틸 Clyfford Still. 비록 모든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작업을 위해 고통스러운 정도의 절대 고독을 작업의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였지만, 특히 이 4인방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한 것. 4인방으로 대변되는 '미국판' 천재 신화의 주연은 단연 폴록(1912~56). 폴록은 미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자국 작가. 뿌리기 기법을 그림의 일부로 삼은 이전 작가들과 달리, 폴록에게 '뿌리기'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그림 그 자체. 데 쿠닝(1904~97)은 추상과 구상의 중간 영역의 여인 이미지로 출발하여 중년 이후 추상으로 전향하며 독특한 화풍 구축. 로스코(1903~70)의 작품은 시적이고 캔버스에서 우러나온 듯한 신비한 색채가 특징. 로스코와 마찬가지로 색면(color-field) 추상 계열 작가로 분류되는 스틸(1904~80)은 우울증과 싸워가며 은둔생활을 통해 터득한 감성적인 색채 배열이 탁월.

## 5. 추상표현주의 제2세대의 등장과 여성 작가들의 맹활약

헬렌 프랭컨탈러(Helen Frankenthaler 1928~ )의 작품에는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엿볼 수 없는 시적 감수성과 여성 특유의 우아함이 배어 있었고,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기법 역시 신선하고 매력적. 프랭컨탈러와 함께 그린버그가 발굴한 2세대 대표 작가로 모리스 루이스Morris Louis와 케니스 놀런드Kenneth Noland. '미술은 매체가 지니는 속성 자체에 진실해야 한다'라는 그린버그의 가르침에 따라 회화의 본질인 평면성에 주목.

이외에도 추상표현주의 2세대로서 많은 작가가 활약했는데, 1세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여성 작가들이 전면에서 등장했다는 것. 그린버그의 총애를 받은 프랭컨탈러를 비롯해,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며 2세대 대표 작가로 등극한 미첼, 남편 폴록의 죽음 이후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크라이스너, 남편 데 쿠닝과 함께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추상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며 비평가로도 활약한 엘레인 데 쿠닝Elaine de Kooning 등이 그 예. 또 이 시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조각가 루이스 네벨슨Louise Nevelson과 파리에서 건너온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가 추상표현주의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활약.

이 가운데서도 미첼(Joan Mitchell 1926~92)은 단연 주목할 만한 작가. 남성 작가 못지않은 힘찬 붓 놀림과 그녀의 야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캔버스, 그러면서도 춤추는 듯한 섬세한 색채 조합, 그리고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치밀한 계획성이 특징. 크라이스너(1908~84)는 호프만에게서 그림 수학. 추상표현주의 그룹 형성에도 가담. 폴록과 1944년에 결혼한 후 화가보다는 내조에 전념. 폴록이 죽은 후에는 그림에 전념하여 미국의 여러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가질 만큼 화가로서 큰 성공.

네벨슨(1899~1988)은 여섯 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출신 작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영감을 받아 길에서 주운 나뭇조각 등 파운드 오브제Found object를 이용한 특유의 작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1911년 파리에서 태어난 부르주아(1911~ )는 1938년에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회화에서 조각으로 관심을 옮겨갔고,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과 가정 폭력에 시달린 가없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소재로 삼아 주로 심리적인 작업 전개.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성 생존 조각가로서는 최고의 시장 구가.